

진학 고민 중학생 목매고... 취업 걱정 대학원생 번개탄 자살

젊은이들 생명 경시 걱정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진학에 실패한 중고교생부터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젊은이들이 현실적인 고민때문에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지난 29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모 대학원에 다니는 A(25)씨가 자신의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가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장래와 취업문제로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B(20)이 병이 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군 당국은 B 이병이 평소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었고 사고 전에 인터넷게임을 그만 하라는 꾸중을 들었다는 유가족의 진술에 따라 B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광주시 북구 한 고시텔에서 C(21)씨가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09년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집을 나가 홀로 원룸이나 고시촌 등을 전전하며 살아오다 최근 다니던 직장도 잃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31일에는 광주시 동구

의 한 야산 중턱에서 취업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D(31)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다던 등산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업이나 진학을 고민하던 청소년들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E(15)양은 중학교를 중퇴한 것에 대한 자괴감으로 고민해오다 집안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양은 이날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면접을 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부산에서 광주의 한 특목고 2학년 F(17)군이 전동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사고 10

일 전 가출했던 F군의 가방에서는 ‘살기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F군은 국내 유명대학의 고교 조기졸업자 전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생명의 전화 박광원 원장은 “물질만능사회에서 젊은이들이 현실의 좌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 등의 폭넓은 이해와 가족과 주위 사람의 작은 배려가 중요하고, 병원이나 전문가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공근로자 식사 후 복귀하다

교통사고 사망은 업무상 재해”

광주지법

공공근로를 하다 점심을 먹은 뒤 작업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지난 30일 “구례군 공공근로자로 채용된 김모(51)씨가 점심을 먹고 작업장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인 이모(여·48)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작업현장에 구내 식당이 없고 별도의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인 구례군이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용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1시간의 점심시간 중

안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채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구례군 공공근로자로 채용돼 3월8일 구례군 봉리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시설물 잔디 깎기 및 복토작업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5km 떨어진 구례군 봉동리 한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한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없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450) 김장두



한나라 도당위원장 경선

금품수수 혐의 2명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중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한씨 등은 경선을 앞둔 지난 8월 말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대의원들을 처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술 취해 하루 두번 여친 찾아가 폭행

○...술에 취해 하루에 두 차례나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는 지난 29일 새벽 5시께 광주시 광안구 신창동 여자친구 김모(22)씨의 집을 찾아가 김씨를 폭행한 뒤, 이날 오전 7시15분께에도 김씨의 집앞에서 출근하는 김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가라는 말에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하직원 성희롱·폭언 물의

시립민속박물관장 파면 요구

광주시 공무원 노조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시립민속박물관장을 징계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발령이 된 시립민속박물관장은 지난해 5월 중국 출장에서 성추행 논란을 빚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최근엔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비이성적 언행으로 동료 여

직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따라 인권도시 광주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시립민속박물관장을 파면할 것,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법원, 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2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진입한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서장은 당시 시위대를 피해 세종로 파출소 교통센터로 피신했으며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심청전 각색 마당극 ‘뽕파전’

지난 30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빔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놀이패 신명단원들이 심청전 가운데 심봉사와 뽕덕여미의 맹인전치 참석 내용을 각색한 마당극 ‘뽕파전’ 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벤츠 여검사’ 의혹 사실로

대검, 특임검사 임명 수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49)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이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이모(여·36) 검사가 지난해 10~11

월 창원지검의 동료 검사에게 전화해 최씨가 고소한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당시 동료 검사는 으레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구속영장 청구 등은 운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해 10월8일과 11월22일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000 검사에게 말해줬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6일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며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이 사이 12월5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액수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최씨 법인가드로 결제됐다. 여검사가 사건청탁의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건청탁과 명품 가방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되면 이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46·사법연수원 1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www.kjhr.com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공무원 시험 [최강집]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숙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강변반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